

축사



김 현 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2회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회를 주관하고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전 전쟁과 굶주림으로 황폐했던 산림을 전 국민의 하나 된 노력을 통해 지금의 울창한 산림으로 가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 어느 곳에서도 산림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꾼 산림은 국민에게 목재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와 임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 공기 정화와 같은 풍부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의 토대로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 울창한 산림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황폐된 북한 산림의 복구와 백두대간 복원, 병해충 공동 방제 등의 산림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환경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산림을 매개로 시작된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더 큰 호혜적인 협력사업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은 과거와는 다른 국민의 긴급한 요구에 당면해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악화된 미세먼지 문제나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해와 기상 이변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은 숲에서 치유를 받고 싶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산촌으로 돌아가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청년들도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산림을 바라보지만, 막상 이들이 산촌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9 산림·임업 전망

저는 오늘 ‘산림·임업·산촌, 기회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대회가 지금 우리 산림과 임업이 당면한 현실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농림업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사는데 산림과 임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산림과 임업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회의원 김 현 권